



표지사진 : 라진시 창평유치원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2001.9)

JTS 통권 32호 2001년 11 · 12월

펴낸날 : 2001. 11. 1

펴낸이 : 법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한인봉, 최정연,
장옥희, 김경희, 이순희,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인도

4 인도 동계스와리 소식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 떨지

북한

7 지금 북한에서는

리선시 방문 알지

청소년

10 아름다운 청소년

태군이 이야기

그리고

12 후원의 소리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일상의 수행

14 활동보고 및 안내

20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3 신규회원 명단

24 특별후원금

25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 편지

2001년 10월 정정임 님

지긋지긋한 더위가 한 풀 꺾인 듯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군요. 송편도 빚어서 먹고 날씨도 마치 한국의 가을 날씨 같아서 추석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곳 동계스와리의 꿈인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 생활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모처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푸남 꾸마리 (1학년) 여학생, 가나홀 마을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서 한국에 보낼 수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학교 상급생 출신 수니따 언니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어딘가 아플 때 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은 꼭 특별한 점심을 먹습니다. 청소시간에 우리들은 서로 점심에 대해 알아 맞추기를 하고 알아맞힌 친구에게는 음식을 더 나누어 주는 게임을 합니다. 우리 마을은 가나홀인데 매일 산을 너머 학교에 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요? 산에다 길을 내는 일이....

랄루 꾸마르 (2학년) 남학생, 망코시힐 마을

나마스테 우리들 모두는 건강하고 잘 지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그러하기를.....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노는 시간도 있습니다. 한국인 언니, 오빠들이 지난 7월에 우리동네에 와서 화장실을 만드는 워크 캠프를 했습니다. 나는 공부와 놀이 둘 다 좋아합니다. 학교 안 이곳 저곳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고 일꾼들도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만...

라빈다르 (2학년) 남학생, 두르가푸르 마을

안녕하세요. 한국의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은 인도에 오지만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힌디로 말하지만 한국 언니 오빠들은 영어로 말합니다. 나는 정말 언니 오빠들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마을 앞에는 동산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아래 학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저씨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오빠들은 공사장에서 일도 하는데 정말 힘도 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행복합니다.



라지브 꾸마르 (3학년) 남학생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친절로 인해 우리 학교는 정말 잘 운영 되어집니다. 상급생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정말 재미있답니다. 마따지 (위말라 스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쿵쿵카이에 베타지 (많이드세요, 아드님) 하던 당신의 말을..... 지바카 병원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댁니다. 우리의 공부, 놀이, 쉬 람단, 음식이 모두 조화롭게 잘 이루어집니다. 나의 한쪽 다리는 조금 불편하니

다. 그러나 매일 산을 넘어 옵니다. 공부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 답장 주세요.

사리따 꾸마리 (4학년) 여학생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기는 모든게 평화롭습니다. 저는 4학년입니다. 우리반 친구는 22명이고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 옵니다. 반학기 시험이 끝났고 12월에는 연말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적지만 일반 상식, 지리, 수학, 예술 시간은 매일 진행됩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같이 그룹별로 배드민턴, 공놀이등 놀이 시간도 가집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것을 다짐합니다.

삼부 꾸마르 (5학년)

안녕하세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나는 삼부 꾸마르입니다. 나의 마을은 빠레와입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벼농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오는 일은 즐겁고 학교도 잘 운영됩니다. 우리집에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내가 다 그 일들을 합니다. 내동생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애도 곧 수자타 아카데미에 다닐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민뚜 꾸마르 (5학년) 방갈비가 마을 남학생

나는 민뚜 꾸마르이고 우리학교는 수자타 아카데미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배우러 오지만 우리학교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름답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뿌리앙카 선생님입니다. 뿌리앙카 선생님은 지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들 모두는 선생님의 수업을 좋아합니다. 때때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수 할 때는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렇지만 많이 웃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십니다. 나는 한국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노래를 좋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라선시 방문 일지

2001년 9월 16일-23일

최경숙 님 (미국 뉴욕제이티에스 라선 상주대표사무소 대표)

9월 16일 (일요일)

9월 16일 인천을 출발하여 9월 18일 화요일 라진시에 도착했다. 9월 19일 (수요일) 라진항 대외운수회사 지도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에서 하는 각종물자 컨테이너 하역작업 및 기중기 사용, 각종 수송관련 비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관에 가서 위생검역 신청서, 수입품검사 신청서 수출입 식물검역신청서 작성 등도 신고원과 함께 직접 가서 알아보았다.

또, 라진항에서 부산서 선적한 설탕(사탕가루)24톤, 분유(유분) 6톤, 비료 57톤을 각 컨테이너에 17톤씩 실어 모두 여섯 컨테이너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입쌀 20톤과 옥수수 10톤은 연길에서 구입 해 통관 절차를 끝내고 트럭으로 운송해서, 21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도착하도록 했다.

9월 20일 (목요일)

비료를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비료 17톤을 먼저 비워야만 연길서 금요일 쌀이 도착하면 쌀 17톤을 다시 그곳에다 저장해야 하고, 나머지 3톤은 분유 컨테이너에 넣고 일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 동안 원호영접처 지도원, 대외사업국 지도원과 함께 나는 택시로 라진 시장에 푸대를 구하러 갔다. 영양쌀가루가 생산되면 탁아유치원에 분배하기 위해 3kg 내지 5kg씩 나눠 담아, 다시 그것을 25kg짜리 큰 푸대 (거기선 마대라고 함)에 넣

어야 한다. 약 600개를 구하러는데(25kg) 시장을 다 찾아도 구멍나지 않고, 심하게 때묻지 않은 중고마대를 모을 수가 없어 부탁해놓고, 다음날 300개를 사왔다. 다시 항으로 돌아갔으나 비료해체 작업도 끝나지 않고, 세관검사도 다 끝나지 않았으며 기중기 트레일러도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한편으로 생산지도부에서는 공장청소, 바닥 및 철판으로 영양쌀가루 담는 큰 통을 다시 만들고, 벽에 페인트 칠, 창문 닦기 등 분주한 날이었다.

2001
9월 21일(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영접처장이 무상기증 무관세 통관 신속한 서류를 직접 들고 택시 대절하여 원정리 국경까지 쌀20톤 마중 나가서 기다렸다. 오전에 통과하지 못해 오후 4시 30분 경에야 라선에 도착했으나 세관검역이 끝나지 않아 그냥 세워두어야 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라선시 인민위원회 건물 앞에 세워두고, 우리는 다시 항에서 기중기와 트레일러 사용이 가능한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오후4시가 되어서야 운송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표사무소까지 끌고 와 하역이 끝난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었다. 검역관리들이 우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우리대표사무소에 와서 하역한 후 검사하고 돌아갔다. 페인트도 마르지 않고, 쌀 수축이(검역)이 끝나지 않아 영양식 생산은 9월 22일 토요일 아침으로 연기되었다.

2001
9월 22일(토요일)

아침 8시부터 서둘러 10시 30분 경에 입쌀이 공장에 들어왔고, 쌀의 질은 최상품은 아니고, 중간짙이었다. 물고기 가공공장 직원 25명 정도 동원하여 20톤 하역하였다. 비료 넣었던 컨테이너는 비료냄새가 난다하여 우리공장 맞은편에 있는 빵공장에 미국서 들여온 빈 컨테이너를 임시로 무료로 빌려, 쌀은 그곳에 넣고, 제가 중국서 사 가져간 큰 열쇠 여섯 개로 각각2개 자물쇠 채웠다. 그리고 들어간 물품내역 및 기증확인서를 라선시 인민위원회 (주체 90년 9월 20일자)로부터 받았다.

2001 마지막 날

그들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비품 중 영양가루 5kg 들어가는 비닐 봉지 약 3,000개를 중국서 구입하여 보내달라 하였다. 또한, 영양가루를 분량별로 나누기 위한 저울이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니, 공장까지 식량자루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일일이 사람들이 매일 1톤씩 직공들 특히 어린 여성들이 메고 나르니, 정말 힘들어 보였다. 하여 그들이 요구한 손수레 한 대를 지원했다.

또한, 영양식 지원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생산 할 것을 제의 받았다. 앞으로 비타민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타민제도 요구되지만, 날이 곧 차지니 아이들에게 내복류와 운동복 종류의 긴팔 의류가 필요해 보였다. 특히, 나일론 운동복은 잘 떨어지지 않으니 지금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옷이라고 한다. 자신의 몸 치수보다 약간 큰 것이 좋다고 했다. 자랄 것을 생각해 크게 입는다고 했다. 우리 어릴 적 그랬듯이... 방문하는 내내 큰 환대를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모습에 대접받는 것이 미안했다. 11월에 꼭 다시 오라는 당부를 뒤로하고 돌아왔다.





태근이 이야기



김애경 님 (청소년 사업부)

청소년사업부가 생긴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을 되돌아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 수련에 참가했던 태근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하모니카를 잘 부는 태근이. 부모님을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형근이와 쌍둥이입니다. 태근이는 수련에 두 번 참가했습니다. 첫번째는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두번째는 스스로 참가했습니다. 큰 키에 어정쩡한 모습. 긴장되어있는 어깨,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길, 주춤거리며 걸어오는 모습, 웅얼거리며 끝을 흐리는 목소리, 태근이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인상입니다. 2000년 겨울, 처음 태근이를 추천해 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성실, 근면하며 준비물도 잘 챙겨오고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는 착실한 학생인데, 사회성이 부족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융통성이 없어서, 오히려 놀림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태근이가 친구들한테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이를 친구들이 잘 받아준다면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을텐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말하듯이 태근이가 처음 수련에 참가했을 때에는 자신 속에 있는 감정과 말을 비깔로 꺼내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분노도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어색해했고 자연스럽게 내놓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수련

에 참가하는 것은 재미있어 했고 스스로는 잘 즐기는 듯 했습니다. 수련을 수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임을 연결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명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에 한달에 한번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태근이는 흔쾌히 수락을 하였습니다. 처음 참가한 태근이의 모습은 주





춤춤 뒷걸음치며 앞에 오는 사람들 얼굴도 못보고 다른 곳을 보며 속으로 외운 것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태근이도 친구들과 상관없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마음, 스스로를 위해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연습 덕분이었는지 태근이는 두번째 참가한 2001년 여름수련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참가동기를 말했는데, 하모니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하겠다는 용기가 생긴 것, 고운 음을 친구들을 위하여 불러주겠다고 준비해 온 태근이가 무척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친구들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 힘이 생겨서인지 수련에 잘 참가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대견했습니다.

태근이의 요즘 근황을 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잔잔한 음성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정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 수련 때 청소를 하면서 우리집이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던 음성이 메아리 되어 울렸습니다. 또한 태근이의 따뜻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계신 남편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태근이를 이해하시고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며칠전, 태근이 한테서 반가운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니다. 학교에서 수련을 갔는데 장기자랑시간에 반대표로 같은 학년 친구들 앞에서 랩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까봐 긴장을 했는데 모두 짱이라고 하면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준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잊지 않는 대견스러운 태근입니다. 변화는 감동을 줍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밖으로 내보낼 것을 준비하여 연습할 시간을 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를 회피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작은 변화에라도 마음 열어 반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태근이의 변화를 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본인이 꾸준히 자신을 위하여 노력을 했고,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께서 기회를 주었으며,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작품입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박진선 님 (여, 37, 자원봉사자)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JTS 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아름답다는 건 내게 있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연두빛 푸르름으로 다가오는 봄의 들관도 아름답고, 빛 바랜 늦가을의 황량한 들관도 내겐 아름다움이다. 뜨는 해도 아름답고 지는 석양도 아름답다.

JTS와의 만남은 내가 알던 아름다움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해 주었다. 우리들의 서로 아끼고 돕는 마음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일 것이다. 그런 세상엔 더 이상의 배고픔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도 없을 테니까.

법륜 스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 행복찾기”란 책을 읽게 되면서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잊고 살아왔던 그 세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에 난 그 책이 평범한 행복의 안내서인가 했는데 거기엔 이 지구촌의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있었다.

JTS는 어린 시절 내가 꿈꾸어 왔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힘들다고 느껴왔던 내 짧은 날의 그 시간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치스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고 느꼈었다.

늦게나마,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JTS가 만들어 가는 세상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스럽다.

법륜 스님과 JTS 실무자님들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못하게 꾸려왔던 내 지난 시간들도 부끄럽고, 자고 싶은 만큼 자는 것도 쾌락이라던 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아직도 나태함을 벗어버리지 못한 내 일상의 날들이 자꾸자꾸 부끄럽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다.

하늘도 푸르고 햇살도 따스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면 좀 더 욕심이 버려질까?

떠오르는 풍해의 해를 보면서,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을 보면서.....아름답게 피어있는 들꽃들을 보면서 나는, 나도 저들과 같이 머물고 있을 뿐인 것을.....하고 가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라질 내 존재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욕심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니까....

하지만 언제나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다.

매일매일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보살심을 내는 사람이 되자는 것, 이 땅의 불교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는 것,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JTS가 있는 한, 나의 이 욕심도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JTS가족과 이 지구촌 어딘 가에서 울고 있을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드리고 싶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수행

윤미옥 님 (여, 38, 자원봉사자)

매화꽃 향기 운운하며 봄을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니, 옛날 옛적 친정엄마가 무슨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하며 꾸념 하실 때 난 옆에서 시간이 지켜워 죽겠는데, 오늘은 뭐하고 보내지 하였던 적이 있었다. 이제야 알겠네. 우리 엄마의 그 녀두리를....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 일도 너무 많은데 마흔을 훌쩍 넘어 설려고 하니 그 동안 난 뭐하고 있었지.

JTS에서 일한 지도 10개월, 어떻게 하나 하는 부담감으로 조금은 무거운 출발을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찌다 보니 또 한해가 바뀔려고 하네.

우리 정진이가 (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너무 좋아한다. 정진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을 하여 집에 오는 시간이 12시 20분 정도, 10시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려니 너무 여유가 없어 허둥허둥 옆사람 얼굴 한번 쳐다 볼 틈 없이 컴퓨터 속에만 틀어박혔다 돌아가기 바빴다. 어떨 땐 겨우 2시간 일 하려고 차비 써 가며 올 필요 있을까. 시간이 많이 생길 때까지 좀 쉬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바로 수행이라는 생각에 게으름을 접고, 또 우리 회원님 중에 매달 천 원씩을 두번 이상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천 원을 입금하러 은행을 한 달에 두 세번이나 들르는 그분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게으름을 위한 합리화 밖에는 안된다는 채찍질을 하면서 비록 적은 시간이지만 정토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이제 정진이가 급식을 하고 태권도를 다니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출력도 하고 발송도 해보고, 대원심 보살님께서 자리를 비워도 허둥거리지 않을 정도가 된것 같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그 동안 세심한 배려로 나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일을 가르쳐 주신 대원심 보살님께 감사드린다. 참!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는데 찾지 못하신 분들, 무조건 마음을 내어 JTS에 와보세요. 거기다 약간의 시간도 추가해야겠죠. 그냥 하다 보면 어느새 예쁜 옷 입지 않아도 화장 곱게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수자타 아카데미 - 뿌리양카 교장선생님

8월 15일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라즈비가 유치원까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였고 학생들과 운동장에 모여서 의식을 하고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8월 30일 교사의 날에 상급생들이 직접 교사들을 위해 행사를 마련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10월 1일은 간디의 생일이었고 그 날을 맞아 병원 2층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법륜 스님께서 학기말 시험 결과에 대한 시상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스위트'와 '푸리', '사부지'를 특별식으로 주었습니다.



학교 학생 중 2명이 계속 결석을 해서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학생에게 학교까지 말고 산에서 돌 깨는 작업으로 돈벌라고 해서 아이가 속이 상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한 아이도 역시 학교에 가지 말라는 아버지에게 맞아서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다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상급생 중에 기타와 만주 둘이서 가야시내의 여학생 운동 경기 시합에 나가 2~3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하르주 대회에 나가기 위해 10월 8일 무자빠뿌르로 갈 예정입니다.

• 지바카 병원 - 이화승 님



요즈음 지바카 병원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은 짜카입니다. 짜카는 막우기가 끝나려고 하는 9월, 10월에 가장 유행하는 질병인데, 빗물과 섞인 우물물로 끓이지 않은 채 마시고, 몸을 청결히 하지 않아서 몸 속 깊이에서부터 고름이 생기는 일종의 피부질환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몸에 한 둘씩 고름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고름을 짜내고 나면 제 엄지손가락만큼 구멍

이 뺨 뚫려 버립니다. 짜감으로 하루에 4~5명의 환자들이 찾아오지요. 고름을 짜낼 때면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워 눈을 지끈 감고,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참아내는 대견한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드레싱 해주는 방 앞에 만 와도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얼른 사탕을 가져와 입안에 넣어주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시 밝아지고 그 틈을 이용해 새로 나온 고름을 제거하고 약을 발라 줍니다. 한번 짜감으로 고름을 짜내게 되면 새살이 완전히 돌아날 때까지 1주일 정도는 계속 와서 약을 바르고 거즈와 솜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면 마을을 순회하며 위생과 청결에 대한 계몽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마을 개발 사업 - 정정임 님

9월 15일

- 6, 7, 8월 3개월 동안 어머니 문자 해독 교실에 참가한 어머니 중 중간 점검 시험이 있었습니다. 58명이 참가하였고 모두들 처음 쳐보는 시험이어서 하나하나 물어 보았고 스위티가 한 문제씩 칠판에 적어주면 이름, 마을 이름, 꽃이름을 답안지에 적었습니다. 아무 것도 단지 이름만 적고 모르겠다고 앉아있는데 2시간을 신통하게 견디어준 어머니들이 대견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9월 19, 20, 21일

- 3일 동안 어머니 문자 해독교실을 책임진 교사들을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사들도 역시 처음 가르쳐 보는 것이므로 출석부 체크에서 교수방법까지 너무 서툴렀습니다. 함께 그리고 만들고 강의 듣고 발표하고 차 마시는 시간까지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까나홀에서 자원한 두 여선생님은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 산을 기꺼이 넘어 왔고 또 한 분은 몰랐다가 나중에 사리 밑으로 보인 발이 발가락이 없고 엄지 발가락이 기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잘 끝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월 25일

- 까나홀에서 마을 쉬람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37명, 나, 스위티, 김동훈씨, 마을 교사 3명, 랍팔리, 카필테오. 장년 5명이 참가하여 현재 유치원이 공사중인데, 흙을 파서 교실바닥 메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워크 캠프 때 마련한 보리수 아래 넓은 정자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노래하면서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9일

- 월례회의에 86명의 어머니들이 참가하였고 특히 어머니 문자 해독 시험과 출석률이 좋았던 어머니들(각 동네에서 1명씩)에게 스님께서 책과 노트, 볼펜, 상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 건축 - 설성봉 님

2001년 8월 21일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8월 27일 ~ 9월 8일)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자 5명 인부 12명 모두 1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기초 줄 콘크리트 작업 완료하고 지하 벽돌쌓기를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순 경에는 골조 공사 (1층)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 공사 진행이 한국처럼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공기안으로 좋은 건물을 지어서 마을 어린이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 건물 보수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마을 개발, 병원 등)

• JTS 청소년 자원 봉사학교 (Youth Shiramadana School of JTS) - 이덕아 님

학교 발대 및 1기 입학식

일 시 : 2001년 10월 2일

장 소 :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강당

입학생 : 5명, 예비 입학생 : 6명, 담임교사 : 1명 (람지)



빔릭샤 1대와 여러 건축 도구들을 갖추고 발대식 및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5명중 2명은 헌디를 읽고 쓰기가 아직 서툴지만 열의는 대단하다. 두르가푸르에서 1명 자그디스푸르에서 4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고 예비 입학생 6명은 좀 더 지켜본 이후 입학할 허락할 예정이다. 산남어 동네 카나홀에서도 8명이 지원했으며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듯 하다. 첫 수업은 아자드비가 유치원 신축 공사를 하지만 지금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전문 기술자 없이 담임교사가 알아서 진행 할 예정이다.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많다.

• 사무국 - 장영주 님

9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뉴델리를 거쳐 11일 동게스와리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스님을 모시고 업무와 생활 전반에 관한 회의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여 의견을 모았다. 생활 원칙은 인도에서도 서울과 다를 게 없다.

제일 먼저 촛대를 만들었다. 전기가 없는 여기서는 발전기를 제한된 시간에만 가동하므로 매일 밤마다 촛불을 켜야하는데 촛대가 없어서 촛불 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물 여기저기에 촛농이 묻어 있어 보기도 안 좋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깻잎 통조림 캔 안쪽에 나무를 대고 못을 쳐서 촛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 그리고 빈 사각 깻통의 뚜껑을 따고 페인트 칠을 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통을 만들었다. 다음은 보안과 자재관리를 위해 열쇠 목록표를 만들고 열쇠가 하나뿐인 것은 교체했다.

사무체계 정비를 위해서 파견된 만큼 사무국 일을 맡게 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회계 업무 체계화 및 투명한 관리, 법인 관련 행정 및 서류관리, 땅 등기 및 구입, 전화 보수 및 전기 가설, 법당 시설 보완, 탕화 그리기, 비품 관리, 생활 관리 철저하게, 근무자 명단 정리, 급식 관리와 티타임에 차 준비 등이다. 이 중에 회계, 비품, 생활, 급식등은 업무를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1주일 전부터 학교 학생들, 노동자들의 점심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점심 만드는 사람은 인도 남자 아이 두명이다. 랍지트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알아 듣는데 까루는 힌디어도 쓸 줄 모른다고 한다. 상견례를 할 때 나이를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다. 예닐곱 되어 보인다. 아직 시간에 맞춰 점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지 말이 안 통해서 인지 그냥 되는대로, 늦으면 늦는대로 내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재료를 잘 씻지도 않고 물에 행구어 건지기도 하고 음식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함께 하면서 청결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식사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겠다. 쌀에는 돌이 많아서 가려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조리대신 사용하기 위해 튀김 할 때 거르는 망을 사왔다.



북한 지원 사업



- 최 경숙님이 (미국뉴욕 제이티에스 이사 , 제이티에스 라선 상주대표사무소 대표) 9월 라선 방문 사업 보고회를 10월 정토회관 2층 강당에서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라선시 창평 유치원에서 받아온 아이들의 그림들과 우리의 비료지원으로 수확된 옥수수를 직접 볼 수 있었다.

• 11월 1일 부산항에서 라진 선봉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영양식 공급을 위한 분유 6톤, 옥수수 10톤을 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싣고 출항한다. 지난 10월 방문때 라진 영양식 가공공장에서 요청한 비닐 30,000장, 저울 2대, 손수레 1대도 함께 보낸다.

- 제이티에스는 올해 라선시 비료 36톤, 비닐 30톤 등의 농자재 지원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농업지원 1차분 1억 9천 5백 만원을 받았다.
- 2001년 10월 12일~ 10월 13일 강촌 골안터 연수원에서 개최한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워크샵'에 제이티에스 대북지원부 실무자 4명이 참가했다.

국내 사업

- 10월 20일 정토회관 강당에서 안천 중학교 27명에게 봉사활동 교육을 하고 명동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을 했다.
- 11월 3일은 방학 중학교 자원 봉사반 15명의 학생들이 방문, 12시부터 4시까지 봉사활동 사전교육과 명동 모금 봉사활동을 한다.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심리적 접근 방법 평가 및 전망

사회 : 이지현 (한국제이티에스 사무국장)

■ 발 제

-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정은일** (전국실직노숙자대책중교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목사)
-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심리적 접근 전략모색 / **고영** (서울자유의집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정신과전문의)
- 실직자 및 실직노숙자를 위한 집단수련(상담)의 효과 및 전망 / **방기연** (그레 심리상담연구소장, 상담심리전문가, 정토수련원 깨달음의장 진행자)

■ 지정토론

- **이기연** (성북정신건강센터 팀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남철관** (대한성공회 살림터 총무)

■ 자유토론

• 청소년 심성 겨울 프로그램

서울시의 후원을 받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프로그램을 11월 29일 ~ 12월 3일, 문경 수련원에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소년소녀 가장 돕기

한국 제이티에스는 지난 9월 25일 서초구에서 가장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11세대에 각각 1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견학 프로그램

국제부의 장옥희님이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간 일본 도야마현 소재 사회 복지 시설 메히노야원을 방문했다.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그 부모, 비장애아동, 그리고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님들이 동행했다.

일본의 사회복지 시설 견학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어우러진 공동체를 모색하고, 일본 아동들과의 교류, 자연속 문화체험 등을 하고 돌아왔다.

후원물품

- 마산국군병원에서 운동화 22켤레, 양말(아동용) 104켤레, 런닝 15벌, 아동용양말 4켤레 보시 하셨습니다.
- 10월27일 일본 오사카 지역 NAW 중앙일조공투에 테라오씨 일행 3명이 JTS를 방문해 라선 어린이 영양식 후원금 315,000엔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단체

한마음선원 70,120 국군미산병원 p.x 4,460 33병동 우승지 2,950 적십자봉사실 변임연 11,730 세탁과 박숙림 10,500 박유진 16,350 유애경 35,000 최복미 5,000 변임연 5,000 박숙임 5,000 그리새 미술학원 김현진 2,680 김홍두 3,660 박민호 7,900 배성준 9,330 홍수향 4,840 이수연 5,520 장보경 17,090 김주혜 3,410 임연진 6,450 김하연 30,600 김나영 24,490 이선희 20,640 무명(주환석) 11,150 김선주 5,990 한유빈 3,670 박옥정 40,810 이용현5,280 창대유치원 조현정 4,540 무명 750 무명 620 무명 1,750 무명 3,860 조성권 4,550 무명 9,790 무명 3,430 무명 1,930 무명 4,800 김한영 10,220 무명 8,910 미산법당 48,860 동국산업일동 21,010 남한고등학교 27,310 선린 학원 손은정 3,600 김승주 15,440 손상영 73,500김재연3,240 김나연 23,140 신성빈 9,890 이진주 6,900 강지현 20,840 구영지 9,710 이예은 17,650 이동혁 10,360 황인정 7,460 배소연 6,430 이승수 17,900 이주현 13,870 구민지 5,610 김서경8,210 이영지 20,770 임석봉 9,440 박동혁 6,350 이호중 19,720 김버리 12,390 김동운 8,620 김경진3,840 김호중4,770 정준수 9,460 박다현 13,710 금민수 20,310 김건우 10,480 강예진10,100 김형구 2,160 구혜진 3,090 조은애 22,410 이정자 19,890 다운초등학교2/1반 205,500 쿵쿠어린이집 28,810 쿵쿠어린이집 16,840 쿵쿠어린이집 2,690 쿵쿠어린이집 10,420 쿵쿠어린이집 2,070 중대부중 15,000 울산명정초등교 1/2,4,5,8,9,10,11반 방주희외183명 791,680 강산유치원 안요근3,270 김유선 4,220 김용우10,900 남상수5,100 강경훈9,030 정소연3,710 이다영3,270 허은정2,840 유희라3,900 송준근3,500 연희옥 8,050 오정웅11,850 전상운4,800 김찬건870 김지훈2,350 안소경4,280 무명 19,110 한재성21,320 무명1,440 장승미4,100 이승숙3,290 한유아10,250 정승교3,420 김소정3,540 김형주14,520 정민주4,230 이윤성10,070 신승환4,420 신희수4,600 박태오15,040 청담중학교 이주현2,000 박은형3,350 이다영5,500 광동주1,590 황인성17,530 최지연7,710 최지영7,010 이민재13,170 김경수7,220 홀미경3,460 박정민17,330 김솔지4,600 고소연4,360 김지민17,540 김동희1,680 1학년7반 11,920 구산중학교 김혜민3,130이주희3,410 김혜민4,090 이수정3,510 김수진2,380 장미영2,620 박지은13,980 한일수 3,100 조홍은행 범원지점28,960 성산초등학교6/3 27,280 광동중 불교학생 549,720 선덕사224,720 본동초등학교 송미란11,900 무명1,800

● 개인

미산 김영희 18,400 유은정 18,470 정구덕 30,340 정성영 32,750 황선옥 30,000 최정옥 17,370 황선옥 78,350 황순천 15,700 신양희 30,000 전희영 50,000 이민옥 31,250 윤원중 30,000 윤기술 47,400 박근숙 21,610 이상록 18,200 문선호 15,130 한초자 39,030 김정아 10,250 무주상보시 18,440 송영희 3,560 송영옥 4,610 고연화20,930 김서영 20,920 김여진23,270 무명 2,040 조정희 13,060 무주상 15,310문지숙 10,960 양진원 18,140 차미정 19,350 신우식 10,620 강자은 20,250 김형수 30,400 남정자 20,130 무주상 23,490무주상 13,810 류동진14,940 정법사17,560 무주상12,370 무주상83,300 박기범28,840 김명자32,570 최수정12,950 최재훈10,350 전재홍15,740 무주상,480 무주상4,530

대전 권수영 25,750 이승숙 2,970 이상무 2,960 이남옥 2,350 이홍숙 3,030 흥한별 2,370 김민수 26,100 배수기 15,550 심석연 35,770 권소윤 39,930 양현탁29,760 양지은29,550 양현호35,440 조미라197,770 실패식당3,540 송영성 5,510 김영호2,490 방은옥5,330 유경진3,080김영일9,320 무명480 김영호2,540 무명6,500 임경희3,980 김덕순3,680 이복희4,280 박찬익3,220 김용웅1,850 갈매기해물탕1,960 오세진3,450 양미정630 황태양7,630 박찬분2,880 이영희2,820 이문숙10,590 유인자23,960 박연실26,340 박연실12,430 전외자14,580 라윤홍2,690 무명2,590 이슬림5,000 길순송3,660 윤연희13,100 김진태16,450 임세미15,500 박지현27,670 김진형11,720 김상태29,140 이필호16,270 이정선19,040 김복순 5,870 오민희3,940 윤여순5,100 최은희5,610 변경희4,750 강선옥5,250 김수연1,100 전희옥7,180 박인영840 무명4,760 김부순3,980 오수진6,540 김은희2,870 전병숙3,470 민경애,490 양정윤5,500 무명14,340 송영희7,820 무명6,840 오세옥 1,410 민정현2,330 김시연950 변지민15,030 박상용1,320 박한성2,210 오세진1,970 김창영23,750 김미혜30,950 무명 12,460 정규희13,740 무명씨600 무명9,900 최민희27,050 이선주10,000 손분박자5,090 이정진17,400 무명9,240 강성희

8,390 하성애16,480 소원숙6,220 이지현3,620 이재승10,400 강기욱6,790 김성현44,100 최재순19,460 정진욱3,180 이태성3,300 배영미16,060 이윤정1,330정양순3,780

대구 안춘옥61,290 김차심10,000 송영화20,000 송도영30,000 한들연90,000 박홍균90,000 박난주23,260 김유연18,850 신인숙31,450 조정자18,720 전병화14,340 백남원9,070 김영순7,370 조옥분41,150 김순희12,900 김춘화30,000 노영숙28,450 권성환12,320 무명6,800 이시백18,880 김두남17,700 노영숙27,100 강승화15,230 김유경21,390 유돈호21,060 최성월9,000 김영중19,370 박미지24,210 김길자4,550 김정숙27,550 박정민16,400 권세운2,700 김채윤1,600 박지수2,250 이명옥4,270 김병주2,820 김호정1,480 최정우6,020 박진수2,290 허은숙8,510 장수인10,420 박종태10,000 장부환4,910 조영래11,170 박희왕3,270 정현주8,960 이유정6,950 최가연1,560 강유선2,980 엄성태3,000 김광선28,350 조영규13,100 윤영리20,100 손창원65,040 최광주20,390 김재송25,680 앙갑수26,150 김현숙23,820 강문옥10,570 김태분20,390 정청원52,550 정순에 자혜심11,160 김숙자21,650 최정희22,250 전병득64,840 서정수10,380 장리지7,160 이새별3,120 김민구6,630 장성준9,020 김민수4,390 김준영4,930 김동진4,040 나혜정7,670 정린진4,820 정린진5,000 황철비 3인3,820 임은숙11,800 유미애29,930 전재구23,380 김경자3,300 전준근8,040 윤재완1,810 객민영6,540 이정화15,000 무주상1,000 이희록24,710 전병득55,730 김윤희25,650 김광석30,000 박만주 19,180 이대화24,800 신재현6,980 손영희30,000 전태원17,300 김춘희100,000 최용근32,590 김순희10,770 조희정7,070 정분희6,010

서울 홍지연 3,000 김혜련 20,000 김재천 5,000 양천강 30,000 권영민 17,390 박진우 7,860 유경옥 25,240 황화숙 30,950 오정숙 8,710 최은익 48,410 임지현, 종혁 13,100 김영환 15,870 강보람 17,910 임지현, 종혁 6,360 김향 25,080 강보람 16,630 고불심 20,930 조정희 33,400 김현숙 21,430 이택건 18,460 김혜성53,450 강영화 14,130 김중수 18,550 박병호 8,600 최지연 22,250 광명각 7,250 이정진 14,540김해자 25,480 김애자 12,450 임숙이 29,210 김경화 12,550 황운 3,520 유영진 22,640 임방희 9,100 김영실 18,390 심을택 19,410 김영범 14,920 고철호 29,300 심유현 16,560 이슬림 11,490 무명 27,950 서수경 12,580 임양호 23,860 유영진 12,200 김솔 2,070 김재연 30,640 남정자 8,710 백향훈 5,570 허경미 120,000 차정환 21,210 정윤자 17,210 무명(분홍색) 22,740 김은성 7,350 한미영 40,400 무명씨 10,140 양경 15,830 황영태12,430 박인순 12,350 김희수 15,860 김지현 16,500 무명씨 40,680 윤해숙 30,800 김기수 16,860 김웅석 5,170 이유진 22,880 육애희 32,300 정혜윤 28,650 황민혜 25,210 장창호19,740 이정순13,750 조선경 13,570 김희수 12,880 이영순 25,000 이수철 10,520 김동창 15,500 조정숙 17,030 박혜연 10,000 윤옥순16,970 이옥자 28,290 이수전 16,480 고행자 15,700 김윤재14,550 오한욱 29,080 무명씨 80,000 허서중 100,000 이광선29,950 손정숙94,640 최원정23,900이옥자10,750 서봉순44,600 서봉순18,690 윤선재52,460 박이서로37,040 박이서로1,000하재환27,570 박춘자19,110 한승희10,000 김영애10,000 장영석5,000 이현방5,000 방동필35,450최연주29,740 조재만19,850 회장임15,020 우정17,750 안부금24,920 이영조66,110 이영조(2)50,850 이영조(3)60,070 황지나17,190 우연24,840 이승신31,250 김나영30,500 한영옥48,900 남궁선30,820 카시미어17,000 이정자34,300 임복순6,440 안복남7,500 이정용7,360 이원호15,480 무명씨23,000 허수자12,200 정준우26,130 오수진28,040 김수13,850 최대웅9,000 김민지4,200순유주4,460 이은선5,000 김혜련20,000 이정연13,310 함선원8,010 김현주14,420 김혜리4,830 황대호21,770 법력광13,890이상훈6,510 한혜자40,800 한혜숙20,180 서병화24,500 무명27,920이승신40,970 송주연2,720 전상훈3,090 김중숙14,400 박주아1210,560 김재천5,000 심정환20,000이홍순3,280 노관호20,890 박춘자17,480 무명23,460 박광열2,100 박광열32,540 노옥재29,510남동우13,230 우임2,210 무명28,300 무명25,340 무명29,360 다르마외새빈56,730 유경동50,720 맹행일30,420 김주양20,750 명유식4,860 권혜숙3,400 무명30,050 조정휘32,100 무명12,420한승희 유도련10,000 김영애10,000 장영석5,000 하영애10,000 김재용10,000 원심15,640 묘당40,700 김도영21,080 유경동40,090 최원욱26,950 박기춘50,800 대환41,260 김미진6,200 차궁삼46,370최가연 장수경19,630 무명116,980 권오분84,360 유순호32,900 성영진34,420 심규환9,110

안성 김경미127,770 최용주17,680 김익환19,070 세라젬2,540 박혜경17,680 최기순15,990 엄정화50,000 범경심29,350 김무상각18,500 정윤조6,420 임성수15,000

부산 강옥분9,810 김영진53,240 권소영108,200 선주행14,400 한현주19,360 이정숙8,910 이소영2,180 한동호1,200 한미연1,290 한미애1,950 박성일22,740 박추원8,040 이수현2,260이광지1,980 김한규4,630 서준호3,870 추경우21,330 추한재22,520 고순남23,320 조정순13,000 녹심초23,500변필수25,830 성은 은화14,200 김민정8,100 권소영130,790 정표 현정 효표32,120 하창선104,710 무명22,000 김정숙12,780 활영례13,480 정경미16,190 한옥영 신순남14,580김희숙21,130 조재현26,080 한영숙9,800 최성희13,120 오영지31,440 장일선40,200 무명12,770 박정덕42,470 구훈희23,130 윤태련21,840 박분이18,530 김희숙20,150 동현42,300 김성환4,520 달림빈20,080 강은진2,680 이경선13,470 김남호6,600 박영희2,980

해남 음악20,050 박기철3,140 이수나16,250 해남비9,370 이은경4,030 전용진2,550 이은경3,990 최광수23,040 이근오 6,640 이강산10,060 김종련40,100 이정훈57,500 오미숙20,650 김복순17,300 구길음19,550 정영부10,150 별심빈29,130김 인혜9,860 박진현12,030 이남선11,800 박광훈27,300 이로미56,710 무명17,700 김애경17,810 김순애42,680 조호영31,650 강분옥22,170 장도연15,670 정복레47,050 박은정2,510 오수복29,180 무명17,300 한정미23,700 문정자19,300 허중구 49,410 진인숙2,580 박정화21,020 조옥남15,050 박정숙77,310 이주옥21,690 오형진 박인숙27,870 문정자16,300 안덕희 8,090 안덕희18,610 안덕희10,800 이경녀20,900 김명옥9,030 조경훈15,470강경희20,200 박지원14,380 서도향18,710무명 18,500 허경화10,000 무명60,130 박성배4,210 김현재17,000 김기찬23,650 박국태9,800정남이15,250 김홍순22,480 김주 연6,460 박지윤4,610 황승민38,200 김민주10,710 최성애18,900 조은 조할26,710 김기훈13,550 허소담4,600 류시진 19,710 이원일10,240 윤일근9,490 한경숙18,980 나광수12,670 황새람3,550 김예운4,550강건우5,320 조민호6,320 권유진 세진11,640 이원강9,620 무명9,870 김동훈9,100 김지예9,610 이인경18,400 이경원8,900 오승란9,970김동혜8,950 이해일 7,550 천미경29,810 김동규14,200

청주 수민당한의원25,410 황복현22,950 윤봉기7,020 이점순16,550 정경주44,070 곽봉준13,810 이윤헌22,330이은선 16,310 민경률10,940 민응기15,670 이옥근43,500 김명렬20,000 이영희20,000 곽영술29,240 정남식28,870 홍기자13,220 황연주18,670 김순옥10,920 박준자29,640 김동윤27,280 이경숙26,460 박옥순19,520 우상훈18,200 유현옥20,850 이정희 4,970 유동욱24,640유다인22,200 원준식29,900 신순례15,310 민안자59,560 이양선10,580 장영애16,880 박노옥24,320이 영희7,060 민한식23,000 정미영15,310 손희경22,760 이혜진9,270 수민당한의원21,660 이현정13,330 박문규25,580

● 거리모금

마산 380,940(8/14) 67,930(8/11) 62,080(8/12) 36,400(8/13) 41,500(8/14) 8,710(8/15) 49,060(8/17) 82,000(8/18) 36,100(8/19) 38,500(8/20) 52,500(8/21) 거리모금 9회 1,783,850

대전 99,690(8/14) 입재식모금 630,040(9/4) 71,120(9/7) 47,900(9/7) 353,250(9월 모금)

대구 163,670(9/3) 228,500(9/11) 청주 321,500(9/29)



▲ 통알돼지를 모아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으로 자란 "리선 창명 유치원"의 한 어린이가 그걸 씹씹한 엄마닭과 병아리 모습입니다.

2001.9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1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2001년 8월

남영옥 211-02436-11
 이순애 211-02437-11
 최연숙 211-02438-11
 김영화 211-02440-11
 김종란 211-02441-11
 강주희 211-02442-11
 허애영 211-02443-11

2001년 9월

김이리 211-02439-11
 황은단 211-02444-11
 정영순 211-02445-11
 박재현 211-02446-11
 오상기 211-02448-11
 김오순 211-02449-11
 양선주 211-02450-11
 최봉자 244-02451-11
 박정대 211-02452-11
 백상희 211-02453-11
 이귀용 211-02454-11
 이양숙 211-02455-11

2001년 10월

원문스님 211-02456-11
 김애숙 211-02457-11
 강소현 211-02458-11
 공인식 211-02459-11
 나민성 211-02460-11
 서현수 211-02461-11
 정임영 211-02462-11
 박정호 211-02463-11
 이경숙 211-02464-11
 남기중 211-02465-11
 이영훈 211-02466-11
 이 한 211-02467-11
 김혜원 211-02468-11
 유하안,유한생
 211-02469-11
 방관철 211-02470-11
 장진희 211-02471-11
 이미정 211-02472-11
 정태인 211-02473-11
 김성은 211-02474-11
 지선주 211-02475-11
 연제영 211-02476-11
 연제욱 211-02477-11
 연제윤 211-02478-11
 강경희 211-02479-11

인도 어린이 결연

2001년 9월

장연지 111-02559-14
 문금영 111-02560-14
 이명애 111-02561-14
 이순호 111-02562-14
 김혜영 111-02563-14
 한희진 111-02564-14
 백석희 111-02565-14

2001년 10월

유미경 111-02566-14
 광영권,길청임
 111-02567-14
 박효선 111-02568-14
 윤미영 111-02569-14

단체 결연

(주)로알기공
 212-00229-11
 일과놀이 출판사
 212-00230-11
 희망세상 어린이집
 212-00231-11

- ◆ 서울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으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바뀐 '예금주명' 과 '계좌번호' 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은 두 계좌로 늘었습니다.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한빛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주택은행	484201-01-000585	신한은행	260-05-011808
서울은행	34908-1533900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특별후원금

2001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들어온 명단입니다

특별후원금

- | | | |
|---------------|----------------|-----------------|
| *김태진-55,000원 | *통도사 관음전 | *홍사단조대부고 |
| *김태정-20,000원 | 기도비-500,000원 | 아카데미-192,630원 |
| *김나영-130,000원 | *성남법당백중천도 | *조연옥-50,000원 |
| *임양호-50,000원 | 기도비-649,000원 | *서동연-100,000원 |
| *홍사단 조대부고 | *전북정읍시 성불암신도 | *김재희-500,000원 |
| 아카데미-90,000원 | 회방생성금-625,000원 | *구길용-250,000원 |
| *방기연-945,000원 | *박종천-30,200원 | *선덕사-224,740원 |
| *금강암 학생회 | *이수남-40,000 | *김민규 - 100,000원 |
| -484,000원 | *박덕환-100,000원 | *유순호 - 130,000원 |
| *김예운-50,000원 | *이현목-100,000원 | *백수현 - 500,000원 |
| *서봉순-100,000원 | *차삼감-50,000원 | *김희수 (문수행) |
| *마경숙-100,000원 | *이선표-50,000원 | - 200,000원 |

입금자 명단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시는데 주소를 몰라 소식을 보내 드리지 못하니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금-이수남(4만) 최순희(1만)
- *국민제이-구길용(25만) 노희순(5천) 백윤관(1만) 익명(1만) 김정희(5천) 김민곤(1만) 강현구(2만) 서경숙(1만) 안순득(5만)
- *국민동포-유경자(1만) 백성현(1만) 신명화(1만) 엄효순(1만)
- *한빛제이-최미연(1만) 양창모(1천) 윤선애(1만) 이지복(2만)
- *농협제이-구이용(3만) 이옥수(1만) 최종숙(2만1천) 이승희(2만) 세정방수(1만5천) 유혜선(5천) 변성윤(1만) 장영은(2만) 신경화(1만) 박근직(1만) 임경미(5천) 김명숙(5만) 이현목(10만)
- *조흥제이-임창호(1만) 오금실(6천) 김민정(1만) 김복순(5만) 이동범(5천)
- *주택제이-김진철(1만) 조재훈(1만) 조창용(1만) 이선표(5만)
- *국민결연-신은영(1만) 불자(2만) 조정원(5천) 장성우(3만) 이항명(5천) 유숙이(2만)
- *외환제이-이귀숙(3만) 차삼감(5만) 김준조(1만)
- *제일제이-임배아(4만)
- *우체국-김재홍(5천) 하용란(1만) 장원익(3만) 박옥희(5천)
- *하나제이-최인선(10만) 최미전(1만)

사단법인 한국 JTS회원관리부
2001.10.15.월요일. 현재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10. 20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10. 20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견학현황

2001. 10. 20현재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10. 20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1. 10. 20현재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80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정기 거리 모금 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동부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거리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부산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 첫째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가방,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7-8756, 587-8995

E-mail:jts@jts.or.kr

http://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